

『天に屬している人』が傳道しなければならぬ 『하늘의 사람』이 전도해야 한다

텐니 조쿠시테이루 히토 가 덴도오 시나케레바 나라나이

密室で私の生活を證として話したことがある 이 사람이 밀실에서 생활간증담을 말씀한 바가 있다

私は祈る時に「私が勝利者になるように」と祈ったことが一度もない。 이 사람은 기도할 때에 내가 이긴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私を地獄に投げてよく、ゴミ箱に捨てても良いから、神様のみ旨だけを成し遂げて下さい。」 「あなたのみ旨を成し遂げる爲には、この私が犠牲の供え物になります」「犠牲の供え物になる爲に足りないものがないようにして下さい。」と一貫して祈った。「神様に私の全てを、生命と體と心を委ねるように」「委ねることも私が委ねるのではなく、神様が委ねさせて下さい。」と祈った。「이 사람은 지옥에 던져도 좋고 쓰레기통에 버려도 좋으니 당신 뜻만 이루어주소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이 희생제물이 되겠나이다”,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소서” 하는 기도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이 사람 전체를, 생명과 몸과 마음을 맡기게 하여 주소서”, “맡기는 것도 내가 맡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 주소서” 하는 식으로 이 사람은 기도를 했습니다.

皆さんこの話を聞いたことを思い出されるでしょう? 여러분들도 들은 기억이 나죠?ところが、その話を聞いた時は魔鬼が聞いたので重要と考えなかった。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마귀 사람이 들었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으로 듣지를 않았습니니다.

私が皆さんに再び言う意味は、今からは魔鬼の人が行なうことを中止して、神様の人が祭壇に出て、神様の人が仕事をして傳道しなければならぬからである。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말씀드리는 뜻은 이제는 마귀의 사람이 움직이고 행하는 것을 중지하고, 하늘의 사람이 제단에 나오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전도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天に屬している人」が傳道してこそその實が確かに結ばれることであり、「天に屬している人」が傳道しなければ傳道も出来ない。魔鬼は實を結ぶことが出来ない。魔鬼は實を結ぶことが出来ないので、傳道する時、私という我相が傳道せず神様が傳道なさって下さいというように、「神様がこの方を傳道なさって下さい」といつも祈りながら傳道しなければならぬ。 ‘하늘의 사람’이 전도도 해야 이제 그대로 열매가 확실하게 맺어지는 것이지, ‘하늘의 사람’이 전도하지 않으면 백날 전도를 해봤자 되지 않습니다. 마귀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므로 전도를 할 때 나라는 야상(我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전도하여 주소서라고 항상 기도하면서 전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神様の心は犠牲的な心である 하나님의 마음은 희생적인 마음이다

傳道が出来た時は「傳道したのは私ではなく、神様がなさったのでしょうか?」神様が傳道なさり、率いて下さったことであり、私が行なったことではないのです」という心情で傳道してこそ、その人の靈がだんだん育つのである。 “私”が毎日行なってみても靈は絶対に育たない。 전도도가 되었을 때는 “내가 했나오. 하나님께서 해 주셨죠, “하나님이 전도



를 해서 이끌어 주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는 이런 심정으로 해야 그래야 이제 그대로 하늘의 사람이 점점 그 영이 자라는 것이올시다. 마귀사람인 내가 백날을 행해봐야 영이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即ち、皆さんが「天に屬している人」の立場に立って心を主管して生活して、禮拜する時も、「天に屬している人」が禮拜をしてこそ、恩恵を受けることであり、「魔鬼に屬している心」で毎日熱心に禮拜しても、絶対恩恵が行かない。 바로 여러분들이 ‘하늘의 사람’이 마음을 주관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생활을 하고 예배를 때에도 하늘의 사람이 예배를 보도록 해야 은혜가 되는 것이지 마귀 사람이 매일 열심히 예배를 봐도 절대 은혜가 가지 않습니다.

ところが、「天に屬している人」は「天に屬している心」を持っていることで、「天に屬している心」というのは犠牲的な神様の心である。 그런데 ‘하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늘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며 ‘하늘의 마음’이란 곧 희생적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犠牲的な心が神様の心であり、利己的な心は魔鬼の心である。 희생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기적인 마음은 마귀의 마음입니다.

だから、皆さんは神様の心、即ち、犠牲的な心を持って生活しなければならぬ。自分が救いを受けられるか、受けられないか、自分が天國に行けるか、行けないか、關係なく、「この者を犠牲の供え物として神様のみ旨だけを成し遂げて下さい。」という祈りを以て一貫してこそ、これが、本物の「天に屬している人」の祈りである。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 즉 희생적인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을 얻든지 못 얻든지, 자신이 천당을 가든지 못 가든지 상관없이 “이것을 희생제물로 삼아 당신 뜻을 이루어주소서.” 하는 기도로 일관해야 이것이 진짜 ‘하늘의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犠牲的な心だけが救いを得ることが出来るのであり、「私という主體意識」をいつも持ち、利己的な考えを持って「私」が天國に行こうという目的を持って信仰生活をすれば、その人は決して天國の門を越えて行くことが出来ない。 희생적인 마음이라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나라는 주체의식을 항상 의식하면서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천당에 가

때가 급하니 어서 빨리 불사영생의 대도를 전해야 하느니라

격암유록 新 해설
수정판 제 32회

處處谷天道還 처처곡곡천도환
水水山山前路立 수수산산전로립
天高地卑有誰知 천고지비유수지
二十四位八方回 이십사위팔방회

곳곳마다 골짜기마다 천도 즉 영생의 도가 돌아오니 물은 물대로 산은 산대로 앞길은 절로 열리니라. 천고지비(天高地卑)의 이치(음양의 이치 즉 세상만사의 이치)를 누가 있어 알겠는가? 24방위와 8방위에 따라 돌아가는 모든 별들도 정해진 이치대로 일정하게 돌아가는 것이니라.

24방위 : 자계죽간인감묘을진손사병
오정미곤진경유신술건해임
8방위(팔괘) : 건 감 간 진 손 리 곤 태

春秋筆法由來跡 춘추필법유래적
三皇五帝億億花 삼황오제억억화
三綱五倫永絕世 삼강오륜영결세
明明至德八條目 명명지덕팔조목
神道觀之重重生 신도관지중중생
十萬大兵號令 십만대병호령
天空空虛虛無無裡 천공공허허무무리

춘추필법은 천하의 질서와 기강을 바로 세우는 사필(史筆)의 준엄한 눈범이니 삼황오제의 선정(善政)과 덕이 남긴 억억(億億)의 자취를 이어받아 오랜 세월 동안 꽃피게 하려 함에서 유래한 것이니 삼강

오문이 영영 끊어지려는 지금의 세상에서 밝고 밝은 도와 덕을 가르치는 32강령(대학지도제 명명덕재신민재지어지 선大學之道在明明德在新民在止於至善) 8조목(格物격물, 致知지지, 誠意성의, 正心정심, 修身수신, 齊家제가, 治國치국, 平天下평천하)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진리를 마음으로 깨달아 거두나게 하려 함이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천군천사를 호령하여 무량대수의 마귀를 박멸소탕 하느니라. 하늘(하나님)은 텅 빈 허공인 것 같지만 없는 것이 없는 조화가 그 속에 있느니라.

東方花獨更明輝 동방화독갱명휘
信天村深紫霞中 신천촌심자하중
秋天執弓白馬還 추천집궁백마환
深盟信誠明道還 심맹신성명도환
三十六宮都春 삼십육궁도춘
萬樹春光鳥飛來 만수춘광조비래
衡天和氣三陽春 형천화기삼양춘
九宮妙妙好理 구궁묘묘호리
三陰三陽一般氣 삼음삼양일반기
千千萬萬何何理 천천만만하하리
吹來長風幾萬里 취래장풍기만리
九重桃李誰可知 구중도리수가지

동방의 등불이 다시 밝게 빛나리니 신천촌(信天村)의 자욱한 보랏빛 안개 속에 인생 앞길을 추수하는 가을(금운)에 심승 정도령(6도 81궁)께서 마귀를 박멸 소탕하는 감로해인을 들고 오느니라. 신부 신랑이 결혼식 할 때 사용하는 동방화족(洞房華燭)은 혼례를 치르고 신랑 신부가 첫 날밤을 보내는 것을 말하지만 진리를 구하는 자는 신부가 되고 하나님은 신랑이 되어 돌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동방화족(東方花燭)은 동방화족(洞房華燭)을 포함하는 것이다. 신인합일(神人合一)이요 하나님이 좌정하심이다.

민음과 정성숙의 깊은 맹세를 이루려고 밝고 밝은 영생의 대도를 가지고 오느니라. 우주 천지가 모두 봄이 오고 온갖 나무에 봄빛이 비치니 새들이 날아드는구나. 하늘을 찌를 듯한 화기(和氣)는 삼양(三陽)의 봄이요 즉 삼양은 건(乾)이니 하늘이다. 즉 마귀를 이기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장하시니 화기(和氣)가 하늘에 가득하다는 뜻이다. 하도낙서의 팔괘 구궁의



진리가 묘하고 묘하다. 좋고 좋다. 삼음은 곤(坤)괘요 삼양은 건(乾)괘이다. 지천태괘(地天泰卦)가 되어 불사영생의 세계가 되느니라. 하늘도 하나 땅도 하나 인간도 하나(천일天一 지일地一 인일人一) 즉 천지인 모두 하나님이 되어 천천만만이 영생을 얻으니 어떤 이치인가? 떠나면 몇 만 리 밖에서 영생의 봄바람이 불어오니 구 구(중구중) 팔십일궁(6도81궁) 정도령이 펴는 영생의 진리를 누가 가히 알리요? 도리(桃李)는 복숭아와 자두이며 이상향을 말한다. 도리(桃李)는 도리(道理)를 암시하고 있기도 하다. 곧 이상향과 영생의 진리를 동시에 의미한다.

생초지락(六) 生初之樂
河東江山一點絳 하동강산일점홍
雲山何在鳥飛絕 설산하재조비절
更明大道天地德 갱명대도천지덕
方夫大壯後錄人 방부대장후록인
十雷風火先天승 십뢰풍화선천합
面面村村牛鳴聲 면면촌촌우명성
道道郡郡萬年風 도도군군만년풍
九馬當路無首吉 구마당로무수길
履霜堅冰皆言順 이상견빙개인순

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결코 천당 문턱을 못 넘어갑니다.

神様は隱密に恩恵を與えて下さる 하나님은 은밀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隱密にみ業をなさる神様は魔鬼が分からないように魔鬼の目を避けて恩恵を與えられるから、恩恵を受けても恩恵を受けた様子をしてはならない。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마귀가 알지 못하게 마귀의 눈을 피해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받은 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いつも魔鬼を騙しながら神様が恩恵を與えられるから、神様が恩恵を隠そうとされるから、恩恵を受けた人が受けた恩恵を隠すのは当たり前である。恩恵を少し體驗したとして、口を開いて隣に誇れば、二度恩恵は来ない。 항상 마귀를 속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감추려고 하시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 받은 것을 숨겨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은혜를 조금 체험했다고 금세 입을 벌려서 옆사람에게 자랑하면 두 번 다시는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神様の恩恵を受ける人は、自分を現さず、いつも自分を隠しながら、謙遜で犠牲的な生活で一貫するようになっている。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항상 자신을 숨기면서 겸손하고 희생적인 삶으로 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人びとの前で神様の仕事をするのではなく、人が見ない時に神様に忠誠をつくして、神様に感謝する生活をする。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自分を表わしたり誇ったりする人は、すでに世の中から賞を受けた人なので神様が二度賞を與えられない。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는 사람은 이미 세상으로부터 상을 받은 사람이므로 하나님께서 두 번 상을 주지 않습니다.

隱密なところにいらっしゃる神様の爲にだけ生きるそのような犠牲的な生活が皆さんにあつてこそ、恩恵の滄波の中で幸福な生を享受することができる。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는 그런 희생적인 생활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은혜의 창과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皆さんはいつも犠牲的な生活で一貫しなければならぬ。 여러분은 항상 희생적인 삶으로 일관해야 합니다.

犠牲的ということは一部分だけ犠牲になって犠牲になるという事ではない。 희생적이라는 것은 이제 일부분만 희생해서 희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生活全てがまさに神様の爲に生きている、神様の爲にだけ犠牲になる健全な生活になってこそ、皆さんは神様になって永生を得るのである。 생활 전체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희생하는 그런 온전한 생활이 되어야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게 되어 있는 겁니다.

いつも犠牲的な心が心の基礎になって活気に満ち溢れて祭壇に出て禮拜をし、大聲で手を打って神様を賛美しなければならぬ。 항상 희생적인 마음 바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기차게 제단에 나와 예배를 보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손뼉을 치고 찬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此時何時運來時 차시하시운래시
時時忙忙急急傳 시시망망급급전

동방 조선의 강산에 금운을 좇아오신 진인(眞精魂一點絳=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일편단심을 가진 분이 계시니 설산이 어디 있는가? 나는 새가 끊어졌도다. 설산은 신선이 계심을 암시하고 새가 끊어짐은 세상을 벗어난 곳으로 쉽게 찾을 수가 없음을 말한다. 천지의 대도대덕을 다시 밝히시니 흠과 티가 없는 반듯한 대장부로서 묵운(6도72궁 손괘=풍風=장녀)의 뒤를 이어 나온 분이니라. 5도72궁에 그리고 마지막 금운(6도81궁 진괘=雷=장남)에 와서 하나님이 사람 마음속의 마귀를 완전히 이기셔서 하나님이 구원되신바 완전의 사람(진인)이 되었느니라.

이에 선천의 흠어진 모든 것을 하나로 합치는 천지공사를 하느니라. 중간에 오는 여인 한 분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다. 여인이어서 드러나면 묘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으면 묘하다고 하였다(중일야암경 12권 三供養品22). 면마다 마을마다 소 울음 즉 영적 암마를 찾는 소리가 울려 퍼지니 도(道)마다 군(軍)마다 불사영생의 봄바람이 불게 되느니라. 정도령이 가는 길에 크게 길함이 있으리니 서툰발 같고 꿈공 언 얼음같이 차가운 마음을 가진 인생들이 모두 춘풍에 눈 녹듯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말을 하게 되느니라. 이때가 어느 때인가? 이러한 때(금운金運)가 눈앞에 왔도다. 때가 시급하니 어서 빨리 불사영생의 대도를 전해야 하느니라.*

박명하 / 교수연구가 010-3912-5963
myunghpark23@naver.com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승리신문은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윤봉수 편집인 박태선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됨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